

치솟는 CP금리... 공사채·특수은행채 '자금블랙홀' 여전

레고랜드 사태 등 자금경색 여파 CP금리 5.39%... 13년래 최고치 신용스프레드도 금융위기 후 최고

한전, 이달 3조600억 채권 발행 특수은행채 발행규모도 줄지 않아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대책에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행 사채(한전채) 등 공사채와 특수은행채 물량이 여전히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업 단기자금 시장의 바로미터인 91일물 CP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1%포인트(p) 오른 5.39%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13일(5.37%)의 기록을 13년 만에 넘어섰다.

회사채와 달리 CP는 수요예측 없이 단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최근 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CP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1.55%이던 CP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이달

들어 5%대를 넘어섰다.

국고채 금리가 내리는데도 회사채 금리가 끊임없이 오르는 등 신용스프레드도 좁혀질 줄이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신용등급 AA- 회사채 3년물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169.1bp(1bp=0.01%p)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걸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한전채 등 공사채와 산은채 등 특수은행채가 고금리와 높은 신용등급으로 여전히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자금 블랙홀'로 지목한다.

대규모 적자를 낸 한전은 이달에 3조 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 달(2조14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었다. 한전채는 'AAA 등급'의 우량 공사채로 적자에 현금이 모자라자 고금리 회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이다.

단, 5.99%대까지 올랐던 3년 만기 한전채의 금리는 5.618%로 소폭 하락했다. 이어 채권 발행 대신 은행권 대출을 통해 2조원가량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2차 대출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각 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특수은행채 발행 규모 역시 크게 줄지 않았다. 이달 들어 특수은행채는 총 11조2200억원 어치 발행됐다. 국책은행의 경우 IBK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수신 기능이 약해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경계심리가 높아진 탓에 CP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자금의 신용 시장 상황은 '안정을 되찾았다'라기 보다는 '아직 불안하지만 최악은 넘겼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미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현재 훼손된 투자심리는 단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내년초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위기 국면을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불안한 코인족... FTX 사태 후 거래대금 26% 뚝

고팍스, 고파이 출금 지연에 지급 불능 우려에 거래 급감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붕괴'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2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소들은 국내 규제 상으로 지급 불능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낫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가상자산(가상화폐) 데이터 집계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셋째 주(14~20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20억2026만달러(약 2조

7376억원)로 집계됐다.

FTX 관련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7일 직전인 11월 첫째주(10월31일~11월6일)만 하더라도 27억3000만달러에 달했지만 2주 만에 26%가량 감소한 것이다.

각 거래소별로도 대부분 거래대금이 FTX 사태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내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22억9739억달러에서 16억8068만달러로 26.84% 감소했다.

업비트의 경우 최근까지 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날까지 15억1030만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한 ▲빗썸 -22.98%(3억2876만달러→2억5320

만달러) ▲코인원 -17.47%(9783만달러→8074만달러) ▲고팍스 -18.72%(252만달러→205만달러) 등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원화 거래소 중 유일하게 코빗은 같은 기간 거래대금이 소폭 늘었지만, 거래대금 기준 전체 점유율 측면에서는 0.05%포인트 오른 수준이라서 유의미한 수치의 변동은 없었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의 파산 여파가 가상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상화폐 대부분이 '큰손'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마저 인출 및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의 인출 요청이 이어졌고,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 고팍스가 최근까지 제공해온 예치 서비스 '고파이'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상품을 중개해 오면서, 예치금 및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고팍스는 고파이와 일반 서비스는 별개로 운영돼 일반 예치 자산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고파이 예치금에 대해서도 상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은 구분해 보관해온 만큼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인출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코빗은 지난 16일부터 자

체 서비스를 통해 보유 가상자산 보유 자산 과 예치금 대비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100.49%), 이더리움(100.43%) 등 거래를 제공 중인 모든 자산의 보유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전날 리포트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우리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1167가구 분양

전용 29~84㎡... 다양한 면적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제공

두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를 분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4개동, 전용 면적 29~84㎡ 총 116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 74㎡, 84㎡ 등 다양한 면적을 구성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있는 원주혁신도시와 가깝다. 원주시청,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갖췄다. 무실로·서원대로 등 주요도로 인접해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투시도. /두산건설

인근 철도 개발호재도 예정돼 있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2027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여주와 원주를 잇는 해당 철도가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원주시의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유리난간창호를 적용한 고품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넉넉한 동간 거리를 확보해 입주

민 프라이버시는 물론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는 대규모 중앙광장이 들어서며 야외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이 예정돼 입주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금융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한양증권, 한국PR대상서 '최우수상' 수상

사내 소통 강화 위해 전담조직 신설 100℃ 커뮤니케이션 통해 화합 도모

한양증권은 한국PR협회가 주최하는 '2022 제 30회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증권업계 최초로 HR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양증권은 최근 4년간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사내 소통 강화를 위해 3년 전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구성했다. 또한 임원과 직원, 기존 직원과 경력 직원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끊는점을 공략한다는 의미의 '100℃ 커뮤니케이션'으로 명명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 간 동료애와 화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공신력 있는



22일 열린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오른쪽), 원우현 한국PR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대외기관에서 높이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진정성과 소통, 조직원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증권사로 거듭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영석 기자